

바람 마냥, 구름 따라, 물 처럼

메이홀 9~17일 강운展

지난 20여년 동안 구름과 물, 공기, 바람에 전착해온 강운 작가가 9일부터 17일까지 메이홀 2, 3층에서 전시회를 연다.

강 작가는 '바람의 흔적'을 주제로 '공기와 꿈', '물 위를 걷다' 등 연작을 선보인다.

두께를 가늠하기 어려운 만큼 얇은 한지를 작은 마름모 모양으로 오려 붙여 만들어낸 화폭에는 바람에 따라 시시각각 모양을 바꾸는 거대한 구름이 펼쳐진다.

'공기와 꿈' 연작은 강 작가에는 숙명이다 같다. '구름 운'(雲)자로 얻은 이름과 생애에 대한 이야기를 화폭에 풀어놓는다. 하늘을 자유롭게 날며 변화무쌍하게 유희하는 구름은 쓸쓸한 속사정을 들려주기도 하고, 때론 고단한 삶에 대한 회의로 울려다본 하늘에서 만날 수 있는 휴식을 선물하기도 한다. 구름의 모습을 삶에 비유하기도 한다.

'물 위를 걷다' 연작은 아크릴판 위에 화선지를 올리고 동양화를 그리듯 한 획을 내리듯 한 최소한의 작업으로 회화의 궁극적 지향점을 찾는 작품이다. 그 안에는 자연과 소통하고 하나가 되어가는 강 작가의 사유 과정이 담겼다. 아크릴판에 흡수되지 않은 기포 반응



'물 위를 걷다-무등산'

이 서로 스며들고 번져나가면서 화합과 조화의 질서를 이야기 한다.

전남대 미술학과를 졸업한 강 작가는 포스코 미술관 등에서 개인전을 열었으며 광주비엔날레, 프라하비엔날레 등에 참여했다. 국립현대미술관, 일본 모리미술관 등에 작품이 소장돼 있다. 전시 개막식은 9일 오후 8시다. 문의 010-6791-8052. /김경민기자 kki@

클래식, 너랑 친해질래

조선대 평생교육원, 강좌 개설 김승일 명예교수 강의 맡아

'클래식과 좀 더 친숙해지고 싶다면?'

어렵게 느껴지는 클래식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이 3월 2일 개강하는 2015학년도 1학기 강좌에 '클래식 아카데미'(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9시)를 새롭게 개설했다.

오랫동안 '클래식 전도사' 역할을 해온 작곡가 김승일(사진) 조선대 명예교수가 강의를 맡은 이번 강좌는 모두 15주 과정으로 진행된다.

정년퇴직 후 김교수는 클래식 음악감상실 '다락'의 다락클래스와 호남신학대 평생교육원의 풍당 클래식, 광주문화재단 클래식 강의 등을 통해 클래식 저변 확대에 힘써왔다.

강의 주제는 ▲음악을 향유하는 방법 ▲음악도 기승전결의 드라마다 ▲음악도 밎고 당기는 드라마다 ▲도대체 소나타가 뭐길래 ▲교향곡과 협주곡 ▲고전주의·낭만주의 음악 ▲음악의 꽃 '실내악' ▲가곡과 예술가곡 ▲바로크 음악과 오페라 ▲관현악단의 내부 속사정 이야기 등이다. 강의 후에 음악을 함께



들어보는 감상 시간을 가지며 질문과 토론 시간을 통해 클래식에 관한 궁금증을 단계적으로 풀어가도록 짜여졌다.

김 명예교수는 10여 권의 저서를 펴냈으며 10여차례 개인 작곡 발표회도 열었다. 회비 7만원. 문의 062-230-7700~2. /김미은기자 mekim@

'김유섭 원초의 풍경'전 22일까지 연장

시립미술관 11일 작가와 토크쇼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조진호)은 상록전시관에서 진행 중인 전시 '김유섭 원초의 풍경' 부대행사로 오는 11일 오후 3시 '큐레이터와 작가의 토크쇼'를 개최한다.

'김유섭 원초의 풍경'전은 당초 지난 1일까지 예정됐었지만 독일을 비롯 전국에서 꾸준히 찾아오는 관람객들로 인해 전시를 오는 22일까지 연장 진행한다.

김유섭 조선대 교수는 조선대 미술대학 졸업 후 곧바로 독일 유학길에 올라 30여 년 동안 20세기 현대미술의 중심지 중 하나인 독일에서 활동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김 교수의 작품 세계와 함께 전시기획의 준비과정, 설치과정 중에 생긴 문제점, 해결방법 등 전시가 이루어지기까지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가 곁들여진다. 행사 마



지막에는 김 교수와 함께 직접 전시장을 돌면서 작품 설명을 듣게 된다.

참석자들에게는 작가가 사인한 도록을 나눠준다. 문의 062-613-7133.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국내 기획자 양성 위한 ‘공동감독제’ 활용”

광주미협·민미협 미술인 공청회

광주비엔날레재단을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재단 조직 개편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광주미협과 광주민미협은 5일 광주YMCA 무진관에서 '광주비엔날레의 발전적 재도약을 위한 미술인 공청회'를 개최했다.

정준보 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장은 광주비엔날레를 유한회사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광주비엔날레의) 대표이사라는 직책이 경영을 우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비엔날레의 총감독 역할을 하느라 경영부문을 놓쳐버린 측면이 있다”며 “순수민간 법인의 형태를 광주시와 기타 민간이 출자한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 운영체제를 전환해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지는 대안도 생각해 봐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제는 광주비엔날레의 정체성에 대한 소모적인 논의는 그만두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볼 시점”이라며 “아시아 청년비엔날레를 개최하는 등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활용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류재한 전남대 불문과 교수는 재단의 격을 높이고 유지하기 위한 조직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류 교수는 “‘원소스 멀티유즈’의 시대에 광주비엔날레는 ‘원소스 원유즈’에 갇힐 수 있는 조직과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진단해 봐야 한다”며 “정책실과 홍보실의 기능을 확대하고 글로벌 인재들로 재단 조직을 채워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금까지 외형적 성장을 해 온 광주비엔날레는 광주의 도시 브랜드를 높이는 데에 크게 기여했다”며 “이제는 지역과 함께하면서 내적 풍요로움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승보 세종문화회관 전시감독은 “광주비엔날레재단의 총감독과 대표이사, 대표이사외 이사인의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며 “전문 CEO가 재정자립에 기여하면 정책수립과 지역 소통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감독은 “지역 전문가 육성 및 외부전문가 네트워크를 위한 팀을 설치하고, 총감독 선정도 국내 기획자 양성을 위해 공동감독 제도를 활용하는 것



광주미협과 광주민미협은 공동으로 5일 오후 광주시 동구 금남로 YMCA 무진관에서 '광주비엔날레의 발전적 재도약을 위한 미술인 공청회'를 개최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재단 어떻게 바꿀까

대표이사·총감독·이사진 기능 분리

정책·홍보실 확대...글로벌 인재 영입

주식회사·유한회사 전환 주장도

재단 어떻게 이끌까

아시아 청년비엔날레 개최 등 전시관 활용

도시 브랜드 제고...이젠 내적 풍요를

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는 “최근 시각예술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작가분만 있고 작품론이 없다는 것인데, 광주비엔날레조차도 관련된 제제로 된 작품론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날 정체성은 동일성이 아니라 차이에 서 나온다”며 “광주비엔날레도 변화, 변태, 변형의 과정을 통해 정체성을 찾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표이사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도 제시됐다.

정준보 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은 “광주비엔날레는 그동안 이우현 전 대표이사의 시스템 속에 있었는데 그분의 네트워크를 광주비엔날레재단은 갖고 있지 못하다”며 “국제적인 네트워크가 있으면서도 일에 대한 열정, 책임, 즉 권한을 철저히 부여받지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대표이사로 선임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승보 전시감독은 “재단을 위해서는 예술, 조직관리, 재정 등 3개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며 “예술성은 총감독에게 맡기고, 조직관리와 재정은 대표이사가 맡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구용 교수는 “기금을 많이 확보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질적인 의견들을 잘 소통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한다”며 “작가, 기획자, 컬렉터 등과 현장에서 소통할 수 있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는 미술인, 재단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시간 가량 진행됐다. 수차례 제기됐던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에 그친 것과 지역 젊은 작가들의 참여가 없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한편 광주비엔날레 혁신위원회는 오는 24일 재단 개혁을 위한 마지막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서울전자음악단’의 즉흥 연주

14일 보헤미안

3인조 밴드 ‘서울전자음악단’이 14일 오후 7시30분 광주시 동구 문화공간 보헤미안에서 공연을 갖는다.

신중현의 둘째 아들인 기타리스트 신윤철을 중심으로 베이스리스트 이봉준, 드러머 손경호가 재결성한 ‘서울전자음악단’은 지난 12월 정규 3집 ‘꿈이라도 좋을까’를 발표하고 ‘RIDE AGAIN’을 타이틀로 전국 클럽 투어를 진행중이다.

이번 전국 투어 공연은 연주자들의 명성에 걸맞게 멤버들의 즉흥연주로 이루어진다. 새 멤버 이봉준은 1996년 ‘퀘스천스’ 베이스리스트 출신으로 2012년 신중현밴드에 참여하며 실력을 인정받았고 2014년부터 서울전자음악단 멤버로 활동중이다. 손경호는 중학교 시절부터 신중현과 밴드 활동을 했으며 그 이후로 많은 밴드를 거쳐 1998년부터 신중현과 ‘원더버드’에서 활동했다.

오는 7일 대구를 시작으로 광주, 서울 등 10개 지역에서 콘서트를 진행한다. 티켓 가격 예매 2만5000원, 현장 3만원. 문의 062-416-100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앙상블 마주얼 창단 공연

13일 금호아트홀



앙상블 마주얼(ENSEMBLE MyJEWEL) 창단 공연이 오는 13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단체이름 ‘마주얼’은 ‘열정’이 ‘마주한다’는 의미로 곡을 연구하며 연주자와 작곡자가 마주하고, 무대에서 연주자와 연주자, 연주자와 관객의 마주함을 통해 서로 공감하는 음악을 의미한다.

바이올리니스트 김도연(아르스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악장)씨가 리더를 맡았으며 김재은·한인지·이성애·황란아·문호정(이상 바이올린), 김주영·양신애(이상 비올라), 박효은·정아름·김민수(이상 첼로), 류수경(타보레티스) 등 국내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젊은 연주자들이 함께한다. 이번 공연에는 비올리스트 김주희, 피아니스트 이선주씨가 객원으로 참여한다.

연주 레퍼토리는 비발디의 ‘2대의 첼로를 위한 콘체르토 g단조’, 바흐의 ‘2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콘체르토 d단조’, 차이코프스키의 ‘플로렌스의 선율 d단조’ 등이다. 티켓 가격 전석 1만원. 문의 02-511-192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2014년 12월 15일~2015년 3월 15일 제주도여행 폭탄세일

나는 제주여행을 (2박3일) ₩109,000원에 갈다~

1일째

- 선박(삿스타크루즈) 08:50 목포항출발 ₩109,000원~ 항공(아시아나) 15:40 광주공항출발 ₩189,000원~
- 13:30 제주항도착직원미팅
- 16:20 제주공항도착직원미팅
- 수목원테마파크-아이스유지엄-트릭아트
- HOTEL : 일반호텔(4~6인실)
- 중식 : 자유식
- 석식 : 호텔식

2일째

- 조식후-아침이 이쁜술안바다~외돌개 올레6.7코스트래킹
- 석부적테마농원-김달따기체험-중문포구~별내천천안대, 천연난대림지대
- 중식후-카멜리아 힐-겨울의꽃 동백동산
- 공예물전시장-조랑말체험
- 제주성읍민속보전마을체험-중식-광치기해안-제주의오름을 한눈에볼수있는 드라이브상선산간도로
- 에코랜드-가자티고코자왓(자연원시림)숲지대관람 -농,수산물직매장 -해녀촌
- 몽골리안 마상소(현지직방)
- HOTER : 일반호텔(4~6인실)
- 중식 : 호텔식
- 석식 : 호텔식

3일째

- 선박 16:00 제주항도착 17:00 출발
- 항공 18:00 제주공항도착 19:35 출발
- 포항사항 : 선박및항공료, 현지차량료, 일행내외입장료, 숙박비, 여행자보험
- 불포항사항 : 옵션(현지직방), 기사, 가이드비 1인 ₩10,000원
- * 제주출발-목포-광주도착20명이상인항공사 1인 ₩20,000원

2015년 겨울방학특선 강원도 화천군 산천어축제

기간 | 2015년 1월 10일(토) ~ 2월 1일(일)까지 무박2일, 1박2일 장소 | 강원도 화천군 산천어 축제장 회원님들모십니다

무박2일

출발지 : 광주역 23:00 집결, 23:30 출발

포항사항 : 전용버스, 입장료, 숙박비, 조식, 중식(상등권), 여행자보험

회비 : 주중 ₩89,000원 주말(금, 토, 일) ₩99,000원

1박2일

1일째 ▶ 광주역 08:00 출발 - 남이섬 - 강원도 화천군 숙박

2일째 ▶ 조식후 - 산천어 축제장 - 15:00 출발 - 광주

포항사항 : 전용버스, 전일정 입장료, 숙박(모텔 4인실), 숙박비, 조식비, 여행자보험

회비 : 주중 ₩169,000원 주말(금, 토, 일) ₩189,000원

* 20명이상출발가능 ** 예약담당문의 H.P : 010-3999-3226

황제 산천어 매일 첫째주 화요일부터 07:30, 광주역 08:00, 문예회관 08:10 출발합니다. 홍보의사 : 문봉구 H.P 010-3999-3226

※ 문의처 | 해외, 국내, 섬투어 전문여행사 **황제관광여행사** 광주광역시 북구 호신로 5 ☎ 062)267-8580 ★ 담당자 | 문봉구 H.P 010-3999-3226 FAX 062-267-8581